

해남, 귀농·귀촌 '1번지' 자리매김...전남 1위 기록

최근 6년간 귀농·귀촌 9천여명 유치 청년 유입·창업 지원 강화 '효과 특출'

해남군이 최근 6년간 9천여명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며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귀농·귀촌 유치를 본격화한 이후 현재까지 총 6년간 귀농인 847가구 1천14명, 귀촌인 7천446가구 8천488명이 해남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인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남으로 이주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을 의미하며, 귀촌인은 농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해남군은 지난해 귀농인 유입이 총 123명으로 전남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해남이 귀농인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체계적인 귀농 정착 지원 정책과 실전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돕고 있다.



귀농 교육생들이 해남군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에서 작물 재배 교육을 받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은 예비 귀농인부터 실제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의 초기 상담을 시작

으로 농지 확보, 주택 수리·임대 지원, 귀농 창업 자금 연계 등 행·재정적 지원이 정착률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사회 지원, 영농 창업 상품권 등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도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종합적 지원 체계는 전국 귀농 희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영농정착 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종자 구입비는 물론, 단계별 포장박스 제작과 홈페이지 구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정착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해남군은 선도농가 현장실습 등 실전형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 정보 제공은 물론 실제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초보 귀농인의 불안 해소와 조기 적응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귀농인 유입 전남 1위, 전국 3위 달성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귀농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은 단순히 귀농을 위한 땅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 공간"이라며 "더 많은 이들이 해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여건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영광군, 어업인 해상풍력 상생기반 마련 '박차'

갈등 해소·수익 공유 논의 본격화

영광군이 어업인들과 마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산업의 상생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한 지역 어업인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어업인 통합위원회와 면담을 실시하고, 어업인 통합 및 합리적인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합위원회는 어업인 통합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으며, 영광군은 관계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간담회에 앞서 통합위원회 측에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포함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어업단체 조사 결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어업인 통합위원회와 어선연합 협의체 등에 간담회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앞으로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월 기본

소득 전담팀을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수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햇빛바람 기본소득 협력단'을 운영 중이다.

협력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체계' 1차 구축을 목표로 법·재정·행정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광군은 발전사와의 협력 아래 이익공유제 도입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해상풍력 수익의 군민 환원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국방부와도 해상사격훈련구역 역외의 공존 방안을 논의하며 에너지 안보와 국방 정책 조율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김동규 기자

강진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지역상품권 제한"

반값여행·육아수당 등은 사용 가능

강진군은 8일 "이달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재정보고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매출 정보에 따라 사전예고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총 57개소의 가맹점을 선별했다.

이 점은 지류(종이) 상품권 및 모바일(착) 상품권 모두가 해당되며, 해당 가맹점 목록은 강진군 홈페이지 '강진사랑상품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 10% 할인을 받아 구매한 강진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정책적 목적에 따라 지급된 반값여행, 농어민수당, 육아수당 등의 정책수

당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면 지역 내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농협 농자재판매장,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농협 하나마트는 예외적으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데, 강진군에서 해당하는 면은 읍면면 뿐이다.

강진군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선순환 상품권 운영으로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방침 아래, 6년째 연중 10% 할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지역경제의 핵심 수단"이라며 "실효성 있는 가맹점 운영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앞으로도 할인판매를 지속하며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나주시, 폭염 속 가축 폐사 대응 '총력'

축산농가 현장 점검·애로사항 청취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등 신속 공급

나주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 세지소 소재 가금농가 2개소(육계·오리)를 방문한 가운데 환풍·냉방시설 작동 상태 등을 점검했다.

현장을 찾은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송풍팬, 안개분무기, 단열자재 등 냉방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가축 폐사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기준 관내 18개 농가에서 총 4천170마리의 가축 폐사가 발생했으며 주로 고온에 취약한 가금류와 양돈 농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주시는 폭염 대응의 일환으로 총 1억8천200

만원 상당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337개 농가에 신속히 공급했다. 또한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1천500만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3억6천700만원), 폭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7천만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나주=정준환 기자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 7일 축산농가를 찾아 폭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폭염 해소에 특히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전담관제를 운영하며 일일 피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축재해보험 조기 가입 독려와 현장 교육 등 능동적인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재난인 만큼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가에서도 냉방장치 점검, 작업 시간 조정 등 자율적인 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신안1004몰 4주년 기획전 '완판 행진'

신규 회원 4천명 ↑ · 1억여원 매출

신안군은 8일 "공식 온라인 쇼핑몰 '신안1004몰'이 4주년을 맞아 진행한 할인 기획전인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조기 종료됐다"고 밝혔다.

기획전은 지난 6월28일부터 7월13일까지 진

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벤트 쿠폰과 적립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며 조기 마감됐다. 행사 기간 동안 약 1억4천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신규 가입자 수도 4천여명을 넘기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번 신규가입을 포함하면 2021년 7월 개설 이후 누적 회원 수는 3만7천여명에 달했다. 모든 행사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구매왕'과 '리뷰왕' 이벤트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누적 구매금액과 리뷰 수를 기준으로 상위 고객에게 적립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른 쿠폰 소진과 높은 참여율은 고객의 신뢰를 보여준 결과"라며 "이벤트 운영을 마지막까지 내실 있게 마무리해 소비자 만족과 입점 업체의 성과를 모두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

목포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23번째 '나눔의 집' 후원 체결

황금어장회센터에 헌관 전달

목포시 만호동 행정복지센터는 8일 "지역특화사업 '나눔의 집' 23번째 참여자인 황금어장회센터와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황금어장회센터는 매월 목포복지재단을 통한 정기적인 현금 후원과 봉사 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만호동 행정복지센터는 감사의 의미로 후원 현관을 전달했다.

김순례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경중 만호동장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선뜻 후원을 약속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의 집'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해 후원 가계를 발굴·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부문화 정착을 도모해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참여업소는 총 23곳으로 늘어났다. /목포=정해선 기자